

고은 시의 번역 현황과 번역시 연구

오 윤 정*

1. 서론
2. 고은 시의 번역 현황—무엇을 선택했는가
3. 고은 시의 번역 가능성과 세계문학으로서의 가치
4. 세계문학으로서의 고은 시

〈국문초록〉

시는 실제로 번역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시행이나 분연의 문제, 고유어의 특질을 한껏 살린 그 언어사회만의 독특한 시어들, 하나하나의 시어에 내재하는 다양한 의미까지. 이와 같은 시 번역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우리의 시가 외국에 번역 소개되었다는 점은 고무할 만한 일이다. 여기에는 시인뿐 아니라 열정적인 번역가들의 노력이 전제되어 있다.

본고의 목적은 고은 시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해외에서의 번역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의 시선이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번역시에 나타난 언어적 특징을 간파하고, 번역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고은 시를 논의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세계 속에 자리매김한 고은의 문학적 성과를 고려하는 동시에 외국에서 수용되는 한국시의 면모를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고은은 현재까지 10개의 언어로 총 30여 권을 간행했으며, 20여 권이

*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초빙교수

출판 준비 중에 있다. 이러한 번역시는 대체로 『순간의 꽃』과 같은 단형의 선시와 다양한 한국적 삶을 재현한 『만인보』로 집중되고 있다. 이와 같은 번역텍스트에 있어 주목할 점은 ‘무엇이 소거되는가’(번역불가능성)와 더불어 ‘무엇이 전달되는가(번역가능성)’의 문제일 것이다. 소거되는 것에 원시의 언어 고유의 쓰임과 함의, 느낌, 행과 연의 배열 등의 문제를 들 수 있다면, 전달되는 것에는 주제, 메시지, 총체적인 것으로서의 정서를 들 수 있다. 특히 고은 번역시의 경우 사회적 관습이나 구체적 상황을 드러내는 다수의 사회어는 삭제되면서, 의미를 전달하는 기능적 언어 내지는 고은 특유의 개인적 언어가 전면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대조와 대구를 통한 비약과 반전, 생생한 묘사와 서사를 통한 리얼리티 등의 고은 시의 요소들은 시적 정서와 주제를 전달하며 시의 가독성을 높이는 특징이 된다.

번역은 단순히 한 세계의 문화를 다른 세계에 전파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 타인에 대한 관심, 동양에 대한 관심, 선적 세계, 불교적 세계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요구들이 고은의 언어와 만나는 자리에 고은 번역시가 놓여 있다는 것이다.

주제어 : 고은, 번역시, 해외문학, 번역가능성, 가독성, 사회어, 개인어

1. 서론

K-pop이나 드라마로 대표되는 한류 열풍이 한국문화의 판도를 바꾸어 놓은 지 1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드라마로 시작한 한류 열풍은 곧이어 음악에까지 그 파고를 이어갔고 근래에는 ‘음식한류’, ‘국악한류’ 등 ‘한류’란 호칭이 보편화되는 추세이다. 문학계 또한 그러한 흐름에 고무된 듯하다. 소위 ‘문학한류’라 칭해지는 이 K릿(K-lit) 열풍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세간에 떠들썩했던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를 위시하여 시, 소설 등 많은 문학작품에 이르기까지

문학의 다양한 해외진출이 모색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우리 현대시도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해외에서 출판되어 왔다. 김소월, 이상, 한용운, 정지용과 같은 시인만이 아니라 고은, 이성복, 신경림, 김지하, 황동규 등의 근래 시인들의 시집도 해외에서 소개되고 있다. 이 가운데 고은 시는 그 양에 있어 단연 선두에 선다. 이는 한편으로 고은 시인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을 반영한다. 고은은 전집을 수차례 출간했고(백민사(1980), 청하(1991), 민음사(1993)), 2002년도에는 김영사에서 38권 분량의 전집을 출판하는 등 다작의 문학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1986년부터 써왔던 「만인보」를 2010년에 완간한 것, 그리고 시, 소설, 평론, 에세이, 기행집, 문학서 등 장르를 가리지 않는 작품을 자유자재로 써온 점, 그가 여든이 넘는 나이에도 아직 현직 시인이라는 점 등 그의 활발한 문학 활동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시에서도 「백두산」으로 대표되는 서사시, 「조국의 별」이나 「문의마을에 가서」와 같은 서정시, 「만인보」 등의 연작시, 「뒤편」, 「순간의 꽃」으로 대표되는 선시, 『차령이 뽀뽀』와 같은 동시집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고 있다. 특히 2005년 이후 매해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면서 고은 문학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진 것 또한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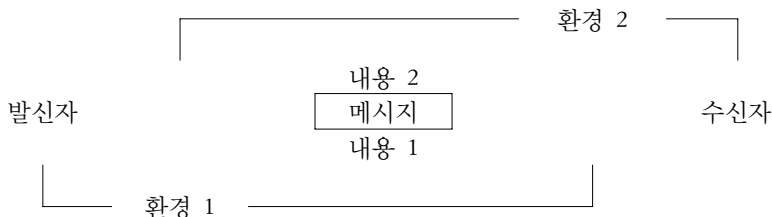
여기에 출가, 자살기도 등의 자전적 요소가 덧붙여 고은 시에 대한 흥미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로 고은 시의 해외 번역물들은 고은의 전기적 삶을 꽤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고, 그러한 안내를 받는 해외 독자 또한 시인의 전기적 상황과 그의 시를 연결하여 이해하고 있다. 여기에 다양한 수상경력과 해외활동 또한 관심을 촉발하는 요소가 되었다. 그가 해외에서 강연, 시낭독 등을 열기 시작한 것은 1987년 일본 도쿄 ‘지식인 협회’ 초청 강연 및 미국 UC 버클리 도시 순회 시낭독과 강연에서부터이다. 그 이후 문학 페스티벌, 각종 도서전이나 문학 강연 등에 고은은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많은 1974년 제 1회 <한국문학상>나 1989년 <만해문학상> 외에도 2005년 본슨 문학훈장, 2006년 시카다 문학상, 스웨덴 문학상 등 국내외 문학상을 수상했다.

본고의 목적은 우선 지금까지 해외에서 번역된 고은 시의 번역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의 시선이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고은의 작품은 시, 소설, 기행문, 평론 등 다양한 장르와 상당한 양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 가운데 어떤 작품들이 선택되어 번역되었는가를 밝히는 일은 고은 시의 어떤 경향의 시가 주목을 받고 있는가를 고찰하는 것이 된다. 또한 고은의 번역시에 나타난 언어적 특징을 간파하고, 원시와 번역시의 비교를 통해 고은 시의 번역 가능한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번역시의 경우 원 작품의 충실성과 외국 독자를 고려하는 가독성의 문제는 중요한 논의 중 하나이다. 이러한 논의는 세계 속에 자리매김한 고은의 문학적 성과를 고려하는 동시에 외국에서 수용되는 한국시의 면모를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로 고은 시인에 대한 관심이나 번역시집의 상당한 양에도 불구하고 고은 번역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고 또한 언어의 문제로 인해 다수의 번역시집 중 영어로 번역된 시집만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데에서 한계를 갖는다. 다만 영어로 번역된 시가 상당수 존재하고, 일본에서 발간된 시 외에 처음으로 영미·유럽권에 번역된 것이 영어로 된 시집이었다는 점, 그리고 다른 언어로 번역된 시들을 살펴보았을 때 영어권 시집과 목차나 작품 선정에서 유사한 점이 많이 발견되었다는 점 등을 주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어로 번역된 시집을 텍스트로 삼는 것은 단순한 편리함 때문만이 아니라 대상 자료의 대표성에도 적합하리라고 생각한다.

프랑스의 기호학자 프랑수와 라스티에는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일련의 조건들, 즉 텍스트적 장르와 사회적 실천과 같은 규범들을 포함하는 의사소통 상황으로써 텍스트의 의미를 규정하였다. 텍스트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다양한 의사소통 환경이 개입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사소통 환경이 달라진다면 텍스트의 의미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다.¹⁾

1) F. Rastier, *Meaning and textuality*,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97, p. 22



번역문학은 발신자가 텍스트를 생산하는 환경(환경1)과 수신자가 텍스트를 해석하는 환경(환경2)이 거리, 문화적으로 큰 차이가 난다. 실제로 고은의 시가 일본이나 중국에서 먼저 번역되었음은 보다 문화적 거리가 가까운 동아시아권 내의 번역이 손쉬웠음을 보여준다. 이후 영미·유럽권으로의 고은의 번역은 수신자 중심의 환경에 보다 큰 영향을 받는다. 고은 시에 대한 인식은 수신자의 동양문화에 대한 인식이나 작품을 해석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지식, 그리고 문화적 격차에 대한 수용태도와 긴밀하게 관련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 2>의 여러 요인은 번역텍스트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뿐더러 원텍스트와 번역텍스트 간의 미묘한 차이를 만든다.

고은의 시작품을 번역하는 과정에서도 환경과 언어의 문제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해외 독자들에게 어떠한 언어가 더 보편적으로 다가왔는가를 계산하기는 쉽지 않다. 문제는 가장 한국적인 관습을 담고 있는 사회어나 고은 개인의 독특한 언어습관이 모두 가독성 있게 번역되었으리라는 점이다. 우선 다음 장에서는 해외문학에 소개된 고은 시의 성과를 살펴보고, 그를 통해 해외에서 어떠한 작품들이 주로 선택되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석할 것이다. 또한 3장을 통해 고은의 원시와 번역시를 비교검토하고 고은 시의 번역가능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2. 고은 시의 번역 현황 — 무엇을 선택했는가

고은 시에 대한 기존 연구는 「만인보」나 「백두산」 등의 개별 작품론이

나 전체 시의 변모 양상에 집중되어 있다. 논자들은 『피안감성』(1960)부터 『신, 언어의 마을』(1967)을 초기, 『문의마을에 가서』(1974)에서 『만인보』, 『백두산』(1987)을 중기, 『뫼냐』(1991), 『순간의 꽃』(2001)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시작을 후기로 나누어 고은 시를 논의하고 있다.²⁾

이와 같은 작품들에 대해 한국 독자는 이미 고은의 다양한 시세계를 이해할 만큼의 문화적, 역사적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한국의 독자들에게 고은은 다양한 점에서 접근 가능하다. 예를 들어 독특한 개인적 이력을 가진 시인이거나, 혹은 시위 현장에서 우렁찬 시 낭송이 유명했던 참여시인으로, 「백두산」이나 「만인보」로 대표되는 상당한 분량의 다작의 시인이 그것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고은의 민중시적 경향이 보다 부각되어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는 다를 수 있다. 출발 지로서의 문학이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도착지의 문학이 기준이 되면서 수용태도나 배경지식 등에 따라 원작의 선택과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³⁾

2011년까지 고은의 시는 일본에서 3권, 영미권에서 8권, 독일에서 5권, 프랑스에서 4권, 스웨덴에서 3권, 그리고 기타 폴란드, 터키, 아랍, 스페인 등에서 수 권이 출간되었다. 초기에는 『조국의 별』을 일본, 독일에서 출간했지만 이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고, 이후 선집 『뫼냐』가 3개국에서, 『순간의 꽃』과 『만인보』가 각각 5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그 외에는 대체로 시선집으로 출간되었는데, 시선집 또한 「문의마을에 가서」나 「뫼냐」, 「아침이슬」, 「만인보」의 초기작품 등을 담고 있다. 이러한 고은

2) 최원식, 「고은, 서정시 30년의 역정」, 『고은문학앨범』(고은·최원식·김승희 공저), 웅진출판, 1993, 163쪽. 김승희는 고은의 시를 “우리 당대에는 가장 이름붙이기 어려운, 이름붙일 수 없는, 명명불가한 에너지의 한 현상”으로 논의하고 있다. (위의 책, 49쪽) 그 외의 고은에 관한 논의는 『고은 문학의 세계』(신경림·백낙청 편, 창작과 비평사, 1993)에도 전개되어 있다.

3) 안선재 교수 또한 “한국문학을 한국적인 것으로 만드는 특징은 오히려 작품이 씌어지고 출판되어 읽히고 수용되는 공간-지리적이고 역사적인 또는 문화적인 공간-에 의해 결정된다.”라며 수신자 중심의 환경에 주목한다. (안선재, 「한국시의 번역과 세계화의 문제」, 『시와 시학』, 2008 가을호, 31쪽)

시의 번역 현황은 고은 전집과 한국문학번역원, 대산재단 등의 정보 등을 통해 정리될 수 있겠다. (<별첨1>)

이에 대해 페데리코 톰바리(이탈리아)는 “고은의 시를 읽으면 짧은 순간이라도 독자와 시인이 구분될 수 없을 정도로 녹아버려서 천 년 후의 미래와 천 년 전의 과거를 보게 된다.”⁴⁾고 평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 신문 스벤스트 다그블라멧은 스웨덴판 『순간의 꽃』을 올해의 책으로 선정하면서 “고은의 짧고 뛰어나게 자유로운 기법을 사용한 시들은 영적으로 메마른 자들에게도 호소력이 있으며, 삶의 수많은 수수께끼들의 답을 찾는 과정에서, 산 지령이 심지어는 아이들의 주근깨까지도 우리들의 스승이 될 수 있음을 인식시켜 준다.”라며 고은 시의 깊이와 아름다움에 주목한다. 독일이나 프랑스, 스웨덴 등의 유럽이나 미국에서 고은은 ‘극동의 네루다’, ‘한국인에게는 살아있는 전설이며 세계인들에게는 가장 위대한 서정시인 중 한 명’⁵⁾이라고 극찬되기에 이른다.⁶⁾

이러한 번역 현황과 해외평가를 종합해 볼 때 외국에서 선호하는 고은 시는 불교적 사유를 담고 있는 선시와 민중의 삶을 재현한 시로 나누어진 다. 전자와 관련하여 『뫼냐』, 『순간의 꽃』과 같은 선시집이, 그리고 후자와 관련하여 민족의 삶과 개인사를 엮어 놓은 『만인보』가 우선 번역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초기에 주로 번역되던 『조국의 별』의 시편들이나 『백두산』 등은 배제된다. 이들은 구체적인 지명이나 인명, 사실적인 서사에 기초하고 있으면서도 단형의 시 형식을 선택한 『만인보』에

4) 『중앙일보』, 2012. 1. 30.

5) ABC 인터뷰, 2007. 2. 17.

6) 그러나 이러한 해외의 평가와는 달리 고은의 번역시에 대한 국내 평가는 다소 냉정하다. 번역작품을 평가할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출판사에서 얼마의 출판부수와 판매부수로, 어느 지역에서 나왔는가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윤희준은 『The Three Way Tavern』의 번역서 리뷰에서 영어권에 소개된 고은의 시가 뉴욕이나 런던의 메이저 출판사가 아닌 코넬대학이나 캘리포니아 대학과 같은 대학관련 출판사에서 학술서의 목적으로 출판되었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것은 영어권에서 한국문학, 혹은 아시아문학의 위상이 그만큼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대산문화』 2007 가을호)

비해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고은 시에 대한 번역이 활발하던 2000년 이후에 출간된 시집 또한 번역에서 배제되었다. 시집 『순간의 꽃』은 <작은 시편들>이라는 부제에서도 볼 수 있듯 제목도 따로 없고, 하나 하나의 페이지도 단독으로 구분되지 않은 단형의 작은 시편들이 무수히 나열된 시집이다. 이는 명상적인 시편들의 모음으로, 고은의 시가 외국의 독자들에게 명상의 목적으로 낭송되기도 하였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 이는 대조나 비약을 통해 주제를 전면화한다는 점에서 가독성이 높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3. 고은 시의 번역 가능성과 세계문학으로서의 가치

(1) 리얼리티를 통한 가독성의 제고

발터 벤야민은 “언어는 그 언어에 상응하는 정신적 본질을 전달한다. 이 정신적 본질은 언어 **속에서** 전달되는 것이지 언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⁷⁾라고 주장했다. 언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은 언어 그 자체가 아니라 언어를 매개로 하는 정신의 본질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벤야민은 ‘전달가능성’이라 논하며 그렇게 전달되는 언어의 특징을 ‘마법성 Magie’ 혹은 ‘무한성 Unendlichkeit’으로 규정짓고 있다. 번역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벤야민의 이와 같은 논리는 ‘시’의 번역에도 적용되는가? 시는 그 정신적 본질과 심미적 가치를 독특한 시적 언어를 통해 전달한다. 시행의 배치, 시어의 섬세한 쓰임, 모국어만의 감각, 독특한 배열의 시적 긴장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원작만의 감각들은 벤야민이 말한 ‘번역 불가능성’의 예가 될 것이다.

라스티에는 의사소통 상황에 기능하는 언어를 크게 기능적 언어, 사회언어, 그리고 개인어로 나누고 있다. 엘름스레우의 언어구분을 토대로 한

7) 발터 벤야민, 최성만 역, 『언어 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번역자의 과제 외』, 도서출판 길, 2008, 73쪽.

그의 언어는 텍스트 내에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다. 텍스트는 이러한 언어가 구체적으로 실현된 산물이라는 것이다.⁸⁾ 먼저 기능적 언어는 국가어 혹은 표준어라는 추상적 개념 대신 현실적인 지리적 경계를 고려한 개념이다. 그것은 나름대로의 엄밀한 규칙성을 보유하고 있는 기능적 체계로서 강한 약호화의 과정을 내재한다. 이와 달리 사회어는 규범적인 체계로서의 언어이다. 사회에는 사회계층이나 연령, 성별 등에 따른 언어 활동의 규범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와 같은 사회적 실행행위로서 언어 활동은 규범적 통제나 사회적 규범을 내재한다. 반면 개인어는 개인적인 언어습관을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개인적 통제, 개인적 언어습관을 전면화한다.⁹⁾

흥미로운 것은 번역 텍스트가 언어의 쓰임을 역으로 실현한다는 점이다. 사회어는 한 언어 공동체 내에서 공유하는 언어적 감각이므로, 그 쓰임이 사회적인 관습이나 특성과 관련된다. 이는 단어의 일반적이고 지시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기능어나 저자 개인의 특이한 언어 습관을 반영하는 개인어와는 달리, 사회어의 경우 그 언어 공동체를 넘어서면 통역 불가능한 것으로 변화된다고 볼 수 있다. 고은의 텍스트 또한 사회어의 번역 불가능함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번역 전략을 사용했다. 예를 들어 여러 참고(note)를 책의 앞뒤에 붙이거나 『남과 북』의 번역서인 『Abiding Places』의 경우에는 각 시에 해당 지명을 설명할 만한 지도를 그려 넣는 것이 그러하다.

시적 언어들은 실제로 단어 그 이상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상당히 함축하고 있다. 고은 시의 ‘숙아’와 ‘군세어라 금순아’(「순간의 꽃」)와 같은 경우 이들 안에 들어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실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음차로 전환된 외국어 표기로는 이름의 끝 글자를 부르는 우리의 언어 관습

8) 라스티에, 앞의 책, 40쪽.

9) 최용호, 『텍스트 의미론 강의』, 인간사랑, 2004. 라스티에에 관한 논의 73-75쪽 참조. 라스티에는 이러한 언어를 분석하기 위해 의소, 의미소, 동위소, 분류소와 같은 언어학적 개념을 빌려 온다. 이들은 주제(Topic)를 드러내는 다양한 층위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이나, ‘숙’이나 ‘금순’이라는 이름이 드러내는 시대적이고(-현대), 여성적인(-남성) 의미자질들을 전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굳세어라 금순아’나 ‘돌아와요 부산항’과 같은 시구가 가지고 있는 문화사적인 의미 또한 마찬가지이다. 대신 이들은 ‘my dear’이나 ‘stand firm, little girl’과 같은 일반적인 언어로 번역된다.

사회어에는 또한 다양한 관습어나 독특한 문법적 국면도 포함이 되는데 이 또한 번역 불가능한 요소들이다. 예를 들어 ‘복사꽃’이나 ‘소쩍새’와 같은 언어들이 각각 ‘peach blossom’이나 ‘the night bird’ 등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는 한국인들이 갖는 독특한 상징성 등을 다 설명하지는 못한다. ‘복사꽃’이나 ‘소쩍새’가 가지고 있는 사회어적 특성을 단순히 기능적 언어로 번역함으로써 원 시어의 독특한 국면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신 번역시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언어를 보완하기 위해 부가적인 설명을 덧붙이거나 문맥을 덧붙이는 등 다양한 방식이 활용이 된다. 다음 인용시의 ‘경어체’ 또한 그러하다.

그 집 안에는 우물이 있어요	There's a well in the yard of that
열 길도 넘는 우물이 있어요	house,
그윽한 분례네 집	a well more than ten fathoms deep.
분례 어머니 박꽃처럼 환한 분	In Pullye's snug family house,
례 어머니하고	Pullye's mother, bright as a
어린 분례하고 옥잠화하고	gourd-flower,
단 두 식구 살고 있어요	and little Pullye, a lily-flower,
젊은 과수매이라	live together, just the two of them.
말 한 마디도 삼가고	The mother a widow, young,
한여름 등물도 한 적 없어요	discreet in every word,
그 분례 어머니가	never dousing herself with water,
열 길 우물에 묵직한 두레박 내	even in midsummer heat.
러뜨려	When I used to go errands there,
길어올린 검푸른 물	if I took one sip of the blue-black

그 물의 고요와 그 무서움
 심부름 가서
 한 모금 마시고 나면 온몸 떨려
 요 두근두근대어요

water,
 of that water's silence and the dread
 that Pullye's mother,
 letting down the heavy bucket,
 drew up from her ten-fathom well,
 my whole body would tremble, my
 heart would pound.

-「우물」의 전문

-「The well」

「만인보」의 번역시에는 대부분의 시에 참고(note)가 붙어 있다. 예를 들어 시 「우물」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결혼한 여자를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보통 큰아이의 이름을 붙여 부른다. 예전의 한국 여자들은 때로 이름이 없었다.”고 설명한다. 이는 남성중심의 사회(남성)와 봉건의 풍습(-현대)을 부가한다. ‘분례’라는 이름 또한 이러한 특질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남성, 현대, -도시). 이름이나 지명은 시대적이고 계층적인 자질을 그 자체로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Pullye’라는 표기로 번역된 번역어는 이러한 언어적 특질을 전달할 수 없다. 또한 원시에서 ‘경어체’를 통해 온전하게 드러나던 ‘어린 소년’의 목소리는 ‘I’로만 제시되는 번역시에서는 전달되기 쉽지 않다. 이러한 번역불가능성은 어린 소년이 느끼는 성적인 심리와 설렘이라는 시적 정서로 접근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그러나 이 시는 가독성을 보완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 우선 제목 「The well」이 그것이다. 원시에서도 ‘우물’은 ‘열길 우물’, ‘길어 올린 김 푸른 물’ 등을 통해 중심적인 이미지로 강조되고 있다. 이는 앞에서 말한 시적 화자인 소년의 두근거리는 유년의 순간을 재현한다. 여기에서 ‘bright’, ‘lily-flower’와 같은 흰색의 이미지나, ‘말 한 마디도 삼가고/한여름 등물도 한 적 없어요’와 같은 ‘분례 어머니’에 대한 묘사 또한 미국의 청교도적인 여인을 연상시키면서 시적 인물의 특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는 앞의 우물과 색채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다. 희고 순결하여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여인, 그런 성숙한 여인에게 끝없이 매혹되는 어린 소년의 감성이 ‘박꽃, 옥잠화’와 ‘우물’의 대조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a widow, young, discreet’와 같은 번역시의 묘사는 ‘젊은 과수택’이라는 원시의 설명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또한 원시에서 어린 시적 화자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 ‘경어체’는 번역시에는 ‘go errand’라는 상황설명을 통해 보완된다. 영어의 어순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시의 거의 마지막 행에 나타나 있는 ‘심부름 가서’(go errand)는 번역시에서 중간쯤의 위치로 변화되고 있다. 다시 말해 원시에 나타난 시적 인물이나 상황에 대한 묘사가 ‘우물’이라는 제재나 그를 통해 드러나는 주제의식을 알맞게 전달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이미지의 강렬한 색채 대립, 주인공에 대한 부각, 시적 화자에 대한 정보(어린 소년이라는)를 부가하는 행의 배치 등은 시의 전달력을 제고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인사불성으로 취해서도	Even when he's drunk himself
입 안의 혀바닥하고	into a stupor,
베등거리 등매기에 꽂은 곰방대는	there are two things he skillfully
용케 떨어뜨리지 않는 사람	keeps from slipping-
어쩌다가 막걸리 한 말이면 큰	the tongue in his mouth
권세이므로	and the long pipe sticking out of
논두렁에 뻗어 굶아떨어지거든	the collar of his jacket.
아들 셋이 쪼르르 효자로 달려가	If he collapses and passes out on
영차 영차 떠메어 와야 하는 사람	a rice-field bank
집에 와 또 마셔야지 작은 울바	because of the great power of a
자 쓰러뜨리며	gallon of makkolli,
동네방네 대고 헛군데 대고	his three sons come running, as
엇그제 벼락 떨어진 건넌마을	good sons should,
시뻘건 황토밭에 대고	and home he comes, borne on their

이년아 이년아 이년아 외치다
 잠드는 사람
 그러나 술 깨이면 숫제 맹물하
 고 형제 아닌 적 없이
 처마 끝 썩은 낙수물 떨어지는데
 오래 야단받이로 팔짱끼고 서
 있는 사람 고한길

shoulders.
 Once back home, he demands
 another drink, smashes the fence
 down,
 shouts out to the neighborhood,
 everywhere and nowhere,
 as far as the red-clay fields of the
 next village
 struck by lightning not so long ago,
 then falls asleep, screaming,
 “Bitch bitch! Bitch!”
 Once he comes round, he’s fresh
 water’s blood-brother.
 There he is, standing with folded
 arms, the butt of scolding
 under the rainwater falling from
 the eaves, Ko Han-gil.

-「할아버지」에서

-「Grandfather」

이 시에도 또한 번역되기 어려운 사회어가 다수 존재한다. ‘곰방대’와 같은 계층을 드러내는 시어들, ‘어찌다가 막걸리 한 말이면 큰 권세이므로’가 갖는 상황 제시, ‘시뻘건 황토밭’이 보여주는 독특한 공간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언어들 은 시의 인물이나 상황을 생생하고 실감나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고한길’이라는 인물에 대한 묘사는 사실성을 높이고 눈앞에 생생한 장면을 재생한다. ‘입안의 헛바닥’과 ‘곰방대’는 떨어뜨리지 않는다라든가, ‘술 깨이면 숫제 맹물하고 형제 아닌 적 없이’, ‘오랜 야단받이로 팔짱끼고 서 있는 사람’ 등 인물의 상태나 감정을 생생하고 해학적으로 드러내는 묘사들은 시적 상황이나 인물에 주목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

그러나 고은의 시에는 동시에 허를 찌르는 진지함이 녹아 있다. ‘그러다가도 크게 깨달았는지/ 악아 일본은 우리나라가 아니란다/ 옛날 충무공이 일본놈들 혼내줬단다 기죽지 말어라’와 같은 구절 등에서 ‘일제’ 시대와 그에 대해 느끼는 비애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진지함과 해학성, 숭고와 비천함이 대조를 이루면서 시적 의미의 극적인 비약을 이루는 것은 고은 특유의 언어적 특성이다.

「만인보」의 시편들은 이와 같이 인물과 배경에 대한 독특한 정서를 전달한다. 「만인보」의 다양한 삶의 군상이나 모습들이 민중의 삶을 재현하겠다는 작가의식과 연결되면서 그만의 구체적 세계로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국의 삶의 양식들을 생생하게 들여다보는 신선함,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모든 삶의 보편성을 발견하는 깨달음은 이미 이 시의 창작의도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여기에 독자 개인의 경험이나 한국에 대한 배경지식을 동원한 읽기가 이루어질 때 해외독자는 낯설을 극복하고 텍스트와의 대화에 참여하게 되며, 공유와 공감을 열어 놓게 된다. 무엇보다 「만인보」가 고은의 여러 시작 가운데 주요한 번역 대상이 된 데에는 인물의 구체적인 묘사, 언어의 차이를 넘어 전달되는 서사라는 번역 가능한 요소 때문이다. 실제로 「만인보」의 인물들은 민중상(창녀, 거지, 머슴, 허풍장이, 장사꾼), 정치인, 장교, 문학 예술인 등의 명망가, 역사적 인물 등등이며, 이러한 인물군을 인지하는 순간 해석의 틀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만인보」는 이들 인물의 개인사를, 각각 다르지만 또한 상당히 유사한 방식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고은의 「만인보」는 이러한 역사적 요소와 더불어 감각적이고 원시적인 자연, 사람들에 대한 향수를 고유의 언어 감각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유사한 서사구조와 개인사의 다양한 에피소드, 그리고 그를 통해 전달되는 삶의 진정성 등이 바로 해외 독자와의 소통을 이루어내는 이유가 되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어의 독특한 비유나 사회어들이 다수 존재하면서도, 번역 불가능한 모국어적 특질이 전면화되지 않으면서 묘사나 서사를 통한 주제가 전달되는 고은만의 독특한 말하기 방식이 전제된다.

(2) 대조와 비약을 통한 가독성의 제고

『뭉나』(1991)와 『순간의 꽃』(2001)은 고은 특유의 파격과 자유, 집중과 해체의 변주라는 말하기 방식을 전면화한다. 이들의 시는 찰나와 영원을 연결하는 주제의식을 담고 있으며, 논리적 비약, 전치, 여백미, 압축과 같은 선적 감각들이 드러나 있다. 이러한 시들은 무엇보다 독특한 언어 사용과 그를 통해 전달되는 시적 감각, 그리고 집중과 그의 순간적인 해제가 드러내는 주제의식이 중시된다.

법화경 구원실성(久遠實成)
이제까지
내가 네놈한테 실컷 맞았다
이제부터
네놈이 내 방망이 맞는다
어이쿠!
맷집 좋다
어이쿠!
어이쿠!

The Lotus Sutra. Ultimate reality.
So far
you've been bashing me badly.
Now
I'll cudgel you, bastard.
Oh! Ouch!
Take that too.
Oh! Ouch!
Oh! Ouch!

법화경 도망쳤다 농사꾼 떠난
들 넓다

The Lotus Sutra dashed away.
Fields open wide, once the farmers
have gone.

-「법화경」의 전문

-「The Lotus Sutra」

‘법화경’은 부처가 되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을 주요사상으로 삼는 불교 경전 중 하나이다. ‘구원실성’의 심오한 진리를 보여주는 이 불법은 그러나 이 시에서 ‘네놈’으로 격하된다. ‘내가 네놈한테 실컷 맞았’으니 ‘이제부터/ 네놈이 내 방망이’를 맞아야 한다는 다소 해학스러운 억지는 ‘어이쿠’라는 호들갑스러운 감탄사의 반복, ‘맷집’과 같은 격하의 언어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 이 시는 ‘법화경’이 도망치는 장면으로

끝을 맺는데, 여기에서 ‘법화경’은 ‘도망쳤다’와 ‘떠난’의 등가로 인해 ‘농사꾼’으로 비유된다. ‘맞았다’, ‘맞는다’, ‘어이쿠’, ‘도망쳤다’가 보여주는 부정적인 시어들은 ‘떠난 들 넓다’는 시적 비약을 통해 이윽고 해소된다. 일체의 집착과 아집을 거부하는 것, 그 모든 규정을 탈피하는 진정한 인간의 해방과 자유가 마지막 행을 통해 실현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의 핵심은 이와 같은 ‘법화경’이라는 승고의 정전을 뒤엎는 전복의 쾌감에 있다.

번역시는 원시의 이와 같은 전망을 시적 언어와 행연을 통해 옮겨 놓는다. 특히 ‘Oh! Ouch!’와 같은 감탄사들은 해학스러운 상황을 적실하게 옮겨 놓는다. 그러나 실제로 이와 같은 종교적인 전망과 깨달음을 전달하는 맥락들은 외국독자에게 상당히 어렵게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시는 가볍고 유쾌한 어조와 그를 반전하는 마지막 구의 독특한 언어 사용을 통해 전달력을 높이고 있다. 고은 시에 주로 나타나는 구어체와 대조라는 수사적 방식은 선적 세계와 비약적인 깨달음을 드러내는 고은 특유의 말하기 방법이다. 고은의 이와 같은 개인어적 사용이 선시의 말하기 방법, 즉 역설의 세계, 정서의 깊이를 집약하는 언어들, 사소한 것으로부터 돈오 각성의 세계로 비약하는 주제성 등과 연결되면서 보다 이해 가능한 세계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¹⁰⁾ 물론 이러한 가독성의 요소는 이미 원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고은의 번역시는 이와 같은 특질을 놓치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순간의 꽃」의 경우에는 이러한 전달되기 어려운 사회어들이 최소화되는 특징을 보인다. 대신 번역하기 쉬운 대비, 대조의 어구들, 인상적인 구절의 효과적인 배치, 여백의 미와 정적 세계가 중점적으로 재현되며 그를 강조하는 도치, 감탄사, 영탄과 반복 등의 수사 등이 나타난다.

10) 이는 이미 2명의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했고, 메이지시대부터 번역에 남다른 공역을 기울여 왔던 일본문학의 영향과도 관련된다. 일본은 이미 상당한 번역물을 각국어로 출판했고, 영미권이나 유럽 등에 이와 같은 하이쿠 등으로 대표되는 일본문학의 특성들이 동양문학의 관념을 형성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비 맞는 풀 춤추고
비 맞는 돌 잠잔다

In the rain the grass is dancing
In the rain the stones are sleeping

*

*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That flower
seen as I went down
-as I was coming up
I couldn't see it
-「Flowers of a Moment」

-「순간의 꽃」에서

「순간의 꽃」의 작은 시편들은 짧고 간단하면서도 선명한 이미지의 대립이 인상적이다. 이러한 짧은 시편들을 통해 서로 상관되는, 혹은 반대되는 사물이나 현상이 제시되고, 그러한 대조나 비약을 통해 즉각적이고도 인상적으로 깨달음의 주제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첫 번째 시에서 이러한 대조나 대구는 원시만이 아니라 번역시에서도 강한 운율성을 만든다. 또한 두 번째 인용시의 경우 ‘내려가다’와 ‘올라가다’의 의미대립과 긴장이 ‘그 꽃’으로 집약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그 꽃’이 드러내는 존재성에 주목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것은 인간의 시간이 범접할 수 없는, 고유한 존재의 세계를 드러낸다. 이는 원시에서는 행의 도치를 통해, 번역시에는 ‘that flower’를 첫 행으로 배치하고 3행을 4행으로 만듦으로써 강조되고 있다. 선명한 이미지의 대립, 대조나 대구를 통한 행의 강조와 리듬, 그리고 도치된 행을 통해 강조되는 ‘대상’의 의미까지 고은의 선시는 주제와 정서를 집중적으로 전달하는 가독성 있는 텍스트가 되는 것이다.

4. 세계문학으로서의 고은 시

시는 실제로 번역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시행이나 문연의 문제, 고유어의 특질을 한껏 살린 그 언어사회만의 독특한 시어

들, 하나하나의 시어가 내재하는 다양한 의미까지. 이러한 요소들은 실제로 번역 불가능한 것으로 남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우리의 시가 외국에 번역 소개되었다는 점은 고무할 만한 일이다.

이와 같은 번역텍스트에 있어 주목할 점은 ‘무엇이 소거되는가’(번역 불가능성)와 더불어 ‘무엇이 전달되는가(번역가능성)’의 문제일 것이다. 소거되는 것에 원전의 언어 고유의 쓰임과 함의, 느낌, 행과 연의 배열, 어순의 번역 등의 문제를 들 수 있다면 전달되는 것에는 주제, 메시지, 총체적인 것으로서의 정서(벤야민은 이를 순수언어로 칭하고 있다)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번역의 충실성과 가독성 중 무엇에 무게를 둘 것인가는 여러 상황을 논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이며, 본고의 목적과도 빗겨나 있다. 다만 원작이 가진 언어가 번역시에 그대로 전달되는 것은 언어가 사용되는 여러 문화적 맥락을 고려할 때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매번 각주를 달고, 참고를 붙이는 것 또한 시를 전달하는 데 있어 그리 탐탁한 방식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반대로 가독성만을 위해 시적 언어, 시작품의 고유한 특질이 무시될 수도 없는 일이다. 문제는 보다 번역 가능한 요소를 가진 시인의 시를 선택하는 문제가 차선으로 논의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많은 지원과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필자는 고은의 시가 번역 텍스트로 적합한 여러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번역 가능성의 요소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고은은 2010년까지 10개의 언어로 총 30여 권을 간행했으며, 20여 권이 출판 준비 중에 있다. 이들은 대체로 『순간의 꽃』과 같은 단형의 선시와 다양한 한국적 삶을 재현한 『만인보』로 번역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같은 번역시의 경우 사회적 관습이나 구체적인 상황을 드러내는 다수의 사회어는 삭제되면서, 본연의 의미만을 전달하는 기능적 언어나 고은 특유의 개인적 언어가 전면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대조와 대구를 통한 비약과 반전, 생생한 묘사와 서사를 통한 리얼리티 등의 고은 시의 요소들은 시적 정서와 주제를 전달하며 시의 가독성을 높이는 특징이 된다.

번역은 단순히 한 세계의 문화를 다른 세계에 전파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 타인에 대한 관심, 동양에 대한 관심, 선적 세계, 불교적 세계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요구들이 만나는 자리에 고은 번역시가 놓여 있다는 것이다.

1. 기본자료

- 고은, 안선재 · 김영무 역, *The Sound of My Waves*, Cornell University, 1992.
- _____, 안선재 · 김영무 역, *Beyond Self*, Parallax, 1997.
- _____, 안선재 · 김영무 · Gary Gach 역, *Ten Thousand Lives*, Green Integer, 2005.
- _____, 정정선 · Hillel Schwartz 역, *Abiding Places*, Tupelo, 2006.
- _____, 임정빈 · Richard Silberg 역, *The Three Way Taver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6.
- _____, 안선재 · 김영무 역, *Flowers of a Moment*, BOA, 2007.
- _____, 안선재 · 김영무 역, *Songs for Tomorrow*, Green, 2008.
- _____, 『고은 전집』, 김영사, 2002.

2. 참고자료

- 고은, 「고은 시인과의 대화-그의 문학과 삶」, 『고은 문학의 세계』, 창작과 비평사, 1993.
- _____, 「이 시의 길을 가면서」, 『순간의 꽃』, 문학동네, 2001.
- 고은 · 최원식 · 김승희, 『고은 문학앨범』, 웅진출판, 1993.
- 김승희, 「전후시의 연술 특성: 애도의 언어와 우울증의 언어」, 『한국시학 연구』, 한국시학회, 2008. 12.
- 신경림 · 백낙청 편, 『고은 문학의 세계』, 창작과비평사, 1993.
- 심재기, 「문화적 전이로서의 번역, 문화 번역에 있어서의 「토속적 표현」의 번역 문제」, 『번역문학』 5호, 한국번역문학회, 2004.
- 안선재, 「노벨상 탈락 ‘번역’ 탓만 할 텐가」, 『뉴스메이커』 697, 경향신문사, 2006.
- _____, 「한국시의 번역과 세계화의 문제」, 『시와 시학』 2008년 가을호.
- 윤혜준, 「고은과 “Ko Un”-영역 고은 시선집 『삼거리 주막 The Three Way

- Tavern』, 『대산문화』, 2007년 가을호.
- 이재복, 「고은의 시와 선적 감각」, 『어문연구』 66, 한국저술연구회, 2010. 12.
- 최용호, 『텍스트 의미론 강의』, 인간사랑, 2004.
- 한원균, 『고은이라는 타자』, 청동거울, 2011.
- 한지희, 「세계문학으로서 한국문학: 번역과 번역공정의 문제에 대한 고찰」,
『비교문학』 54, 한국비교문학회, 2011.
- 발터 벤야민, 최성만 역, 『언어 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번역자의
과제 외』, 도서출판 길, 2008.
- F. Rastier, *Meaning and Textuality*,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97.

[별첨 1]

〈고은 시의 번역 현황〉

번역서	원서명	언어	역자	출판사	출판연도	비고
祖國の星	조국의 별	일본어	金學鉉	新幹社	1989	
The Sound of My Waves	나의 파도소리	영어	안선재·김영무	Cornell university	1992	
Morning Dew	시선집	영어	안선재·김영무	Paper Bark	1996	호주
Die Sterne Über dem Land der Väter	조국의 별	독일어	채문정	Suhrkamp	1996	
Beyond Self	뭐냐	영어	안선재	parallax	1997	
Fuente en Illamas	고은 시선집 (불타는 샘)	멕시코어	서성철·Ontonon de Lope	Collegio de Mexico	1998	
Una Piedra en el Limite de los Campos	선시집 뭐냐	스페인어	정권태·Raul Aceves	Oro de la Noche editions	1999	멕시코
Qu'est-ce?	뭐냐	프랑스어	노미숙·Alain Genetiot	Maison Neuve et Larose	2000	
對話	대화	중국어	박정일	學院	2000	
Fråga månskenet om vägen	고은 시선	스웨덴어	최병은	Heidurns	2002	
Ein Tag voller Wind	내일의 노래	독일어	임종대·Jurgen Abel	Pendragon	2002	
Sous un poirier sauvage	돌배나무 아래서	프랑스어	한대균	Circé	2004	
Diez mil vidas	만인보	스페인어	김은경·Jose catalan	Editorial Verbum	2004	

번역서	원서명	언어	역자	출판사	출판연도	비고
Tiotusen fotspår och andra dikter	만인보	스웨덴어	한인자	Atlantis	2005	
Ten Thousand Lives	만인보	영어	안선재· 김영무· Gary Gach	Green Integer	2005	
KVĚTY OKAMŽIKU	순간의 꽃	체코어	미리암 로벤 스타이노바	Mladá Fronta	2005	
Fiori d'un istante	순간의 꽃	이탈리아어	빈센차 두르소	Libreria Editrice Cafoscarina	2006	
Abiding Places: Korean South&North	남과 북	영어	정정선· Hillel Schwartz	Tupelo	2006	
The Three Way Tavern	고은 시선	영어	임정빈· Richard Silberg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6	
Stundens blomma	순간의 꽃	스웨덴어	한인자	Atlantis	2006	
Zen-Gedichte, was'n das?	뭐냐	독일어	한스 유르겐 자보로브스키	Angkor	2006	
Flowers of a Moment	순간의 꽃	영어	안선재	BOA	2007	
고은시선집	고은시선집	일어	김응교· 靑柳優子	藤原書林	2007	
Beim Erwachen aus dem Schlaf	시선집 (1993-2000)	독일어	김미혜· Sylvia Brasel	Wallstein	2007	
Dix mille vies	만인보	프랑스어	정예영	Belin	2008	
Songs for Tomorrow	고은시선집	영어	안선재· 김영무, Gary Gach	Green Integer	2008	

번역서	원서명	언어	역자	출판사	출판연도	비고
What: 108 Zen poems	뭐냐	영어	안선재·김영무	Parallax	2008	Beyond self
L'Isola che canta : Antologia poetica (1992-2002)	고은시선	이탈리아어	빈센차 두르소	Lietocolle	2009	
Cierta alegria	어떤 즐거움	스페인어	김현균	El Gato Gris	2009	
Málaga Milenaria	고은시선집	스페인어	Antonio J. Domenech·김은경	University of Málaga	2009	
bài hát ngày mai	내일의 노래	베트남어	테 당 호안	nhà xuất bản hội nhà văn	2010	
И черный журавль спускался с небес	만인보	러시아어	이은경	Khudozhestvennaya Literatura	2010	
Raptem deszcz	고은시선집	폴란드어	아담 쇼스트 키에비츠	Społeczny Instytut Wydawniczy Znak	2010	
أماكن خالدة	남과 북	아랍어	김종도		2011	
YARIN DESTANI : SEÇME ŞİİRLER	고은시선집	터키어	오은경	Ürün	2011	
Blüten des augenblicks	순간의 꽃	독일어	한스 유르겐 자보로브스키	Suhrkamp	2011	
Chuchotements	속삭임	불어	알랭 제스티오	블랭출판사	2011	
To je	시선집 <그것은>	체코어	미리암 뢰벤 스타이노바·박미영		2011	

〈ABSTRACT〉

A Study on the Translated Poems and the Translation Status in Ko Un's Poetry

Yoon-jeong Oh
(Incheon University)

This study is for examining the translation status of Ko Un's poems which has been translated overseas up to now and examining which points they are paying attention to in his poetry.

Ko Un's translated poems has been published into 30 books in 10 languages, and an additional 25 are ready to be published. His translated poetry seemed to be mainly abridged to *Flowers of a Moment* which is a Zen-poetry and *Ten Thousand Lives* which reproduces Korean's diverse lives.

In translated poetry, some of the important factors are how to be read by foreign readers and how much faithfulness it has in recreating its original. In other words, what we have in concern about the translated text is what has to be eliminated(non-translatability) and what is to be mentioned(translatability). For example, the former can be an unique way using the original language, implication, feeling, and arranging way of lines and stanza, etc. while the latter refers to the theme, messages, and general emotions, etc.

In Ko Un's poetry, many parts of social terms which reveals specific situation or social custom are removed, while his unique and personal language is inserted. Jumping and reversal through contrast and couplets, vivid description and epic

play a role in conveying a theme and poetic feeling as well as enhancing the readability.

Key words : Ko Un, translated poetry, foreign literature, translatability, readability, social language, personal language

논문접수일 : 3.15 / 심사기간 : 3.16~4.5 / 게재확정일 : 4.10
